

동맹 공유한 두 이웃, 한국과 일본은 공동안보운명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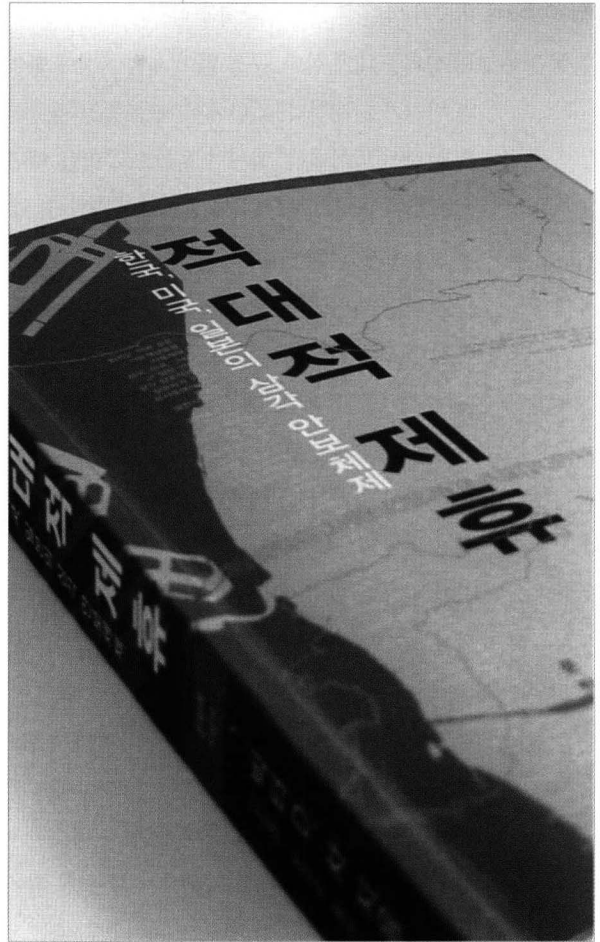
박인휘

빅터 차의 대표적 역작으로 알려진 원저에 두 번역자의 남다른 노고가 보태어져 빛어낸 《적대적 제휴》를 효과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 설명으로, 독자들은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이 보이는 두 가지 전통적인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현실이 이론을 견인하는 '사건 선도적'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정치학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상 유지적'인 보수주의의 시각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학 이론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사전에 미리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강대국 중심적인 사고와 시각에서 국제정치 사건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이다. 구소련의 붕괴를 포함한 냉전 질서의 갑작스런 몰락을 예견한 국제정치학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음과, 아울러 미국이 곧 세계라는 국제정치적 전환의 논리가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두 번째 설명은 동북아가 가지는 지정학적 특징에 관해서다. 수백년 동안 보편적인 가치들을 공유하면서 국제관계의 수평적인 확산을 통해 초국가적 질서에 익숙한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동북아(광의로는 동아시아)는 대개 19세기와 20세기에 와서야 근대적인 국제질서에 편입하게 된다. 그러한 뒤늦은 근대국제질서 진입 과정마저도 역사적으로 식민지, 서구문명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이해, 문명적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치적 불평등, 내전 등 다양한 형태의 비극과 손실을 수반하였다. 19세기 말 이후 한국의 근대사는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모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의 근대국가로의 전환이 일제히 완성되는 2차 대전 이후의 국제관계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하는 작업은 동북아 지역만이 가지는 독특한 학문적 에토스를 자아낸다.

이상의 두 가지 설명이 《적대적 제휴》에서 성공적으로 만나고 있다.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일견 상반된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한국과 일본은 왜 군사·안보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없는가 하는 점과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어떻게 두 국가는 미국을 공동의 동맹 파트너로 두고서 실제로는 동맹관계에 준하는 군사·안보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저자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퍼즐을 풀기위해 45년 이후 동북아 외교사에 관한 두 가지 시도를 하였다.

저자의 첫 번째 시도는 역사적 사실들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그것들을 과감한 일반화를 통해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론적 분석틀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저자의 “유사동맹(Quasi-Alliance)”은 이러한 시도의 해답이다. 한·일간 공식적인 동맹관계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국과의 삼국관계를 통해 소위 ‘유사동맹’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60년대 이후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일간에 일어났던 수많은 차원의 복잡다단한 외교관계를 유사동맹 모델로서 깔끔하게 정리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형화시키는 친절한 저자로서의



《적대적 제휴 :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빅터 D. 차 지음 | 김일영·문순보 옮김 |
문학과지성사 | 538쪽 | 값 24,000원

덕목을 잊지 않았다.

저자의 두 번째 시도는 한·미·일 간 외교사 관련 저서들 중에서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1차 자료 분석은 물론 관련 문헌들을 두루 섭렵하였다는 데에 있다. 통상 이러한 유의 책이 범하기 쉬운 과오의 하나로 역사적 사실들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빅터 차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비껴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저자가 지닌 탁월한 부지런함과 남다른 혜안이 결합한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전직관료들과의 인터뷰, 언론보도, 각종 근현대 사료, 정부 공식 문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의 사건들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다시 펼쳐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한마디는 무엇일까? 아마도 짐작컨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간의 외교적 협조와 상호 국가이익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전후에 애써 가꾸은 동북아 평화체제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아닐까 싶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적 반감, 정치·경제의 구조적 상이함, 안보이익의 차별성 등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과 일본간 준 동맹관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천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닉슨 독트린, 북한에 의한 한·일간 외교 갈등, 베트남 전쟁, 커터 행정부와 의 불편함 등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미·일 삼국은 동아시아 경제성장과 안보유지를 견인하는 핵심적인 축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 독자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혹 일반 독자들이라 할지라도 저자와 번역자의 워낙 꼼꼼한 설명과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한 번역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거듭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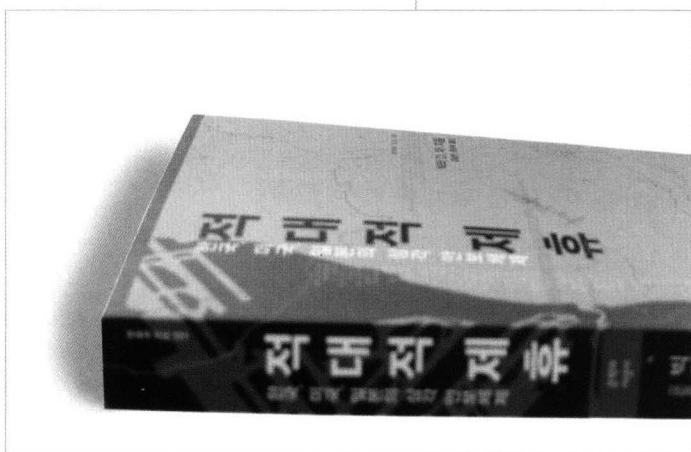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저자가 과도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는 점이다. 빅터 차의 다른 저서 및 논문들에서 발견되는 궤도난마의 주장이나 단정한 입장정리와 비교해 볼 때 《적대적 제휴》는 독자들로 하여금 먼 길을 돌게 만든다. 한일관계 전문가가 아니면 저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 몇 군데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책이 국제관계 이론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외교사 책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그다지 책잡힐 비난은 아닐 성 싶다.

끝으로 이 책은 원저에는 없었던 저자의 최근 논문 두 개를 포함시켜 동맹의 정체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유사동맹'의 21세기적 적실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친절함을 잊지 않고 있다. 북핵 위기, 미국 대선, 과거사청산, 중국의 동북공정, 주한미군 감축, 일본의 정상국가화, 이런 외교 사안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는 이즈음 역사에서 해답을 얻을 것이 없을까하는 마음에 새삼 20세기로부터 물려받은 과제에 대해 고민해보게 된다. **유진**



이 글을 쓴 박인휘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정치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미교류협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다. 대표논문과 저서로는 <주권과 글로벌 안보>와 <테러와 한국의 국가안보>(공저)가 있다.



책의 길을 찾아, 그 갈피에로의 동행... 책 권하는 사회를 위한 변론들

민병덕의《전자책도 종이책도 독서 로드맵》

이종국

책에 관한 되살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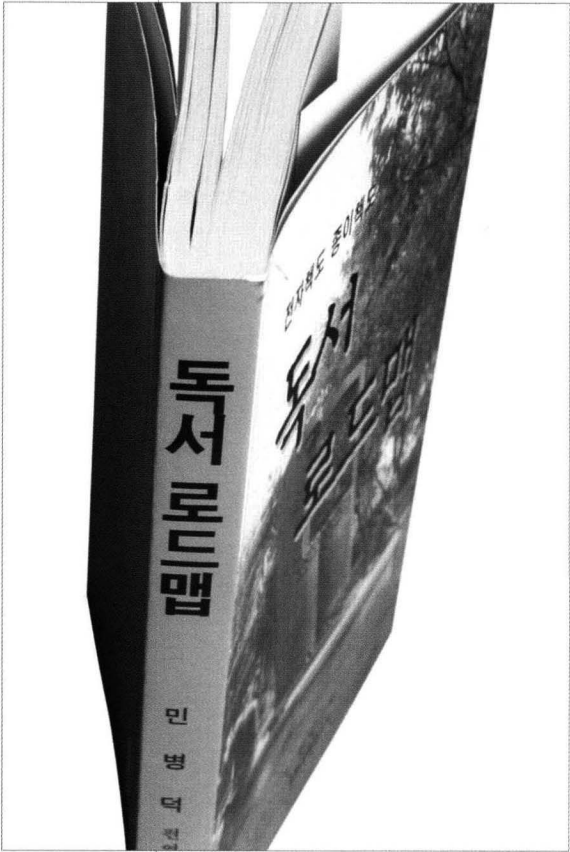
“죽간이 CD 롬이다.” 이 절묘한 명제는 《전자책도 종이책도 독서 로드맵》이라 이름 붙인 민병덕 교수의 새 책, 그 첫 갈피에서 선언하고 있는 책에 관한 해명이다. 따지고 보면, 3천여 년의 시공을 뛰어 넘는 먼 옛날에 개발된 죽간은, 오늘의 전자책으로 진화했듯이 당시로서는 가장 뛰어난 첨단매체였다는 기능적 동일성에의 점점에 다다른 인식이다. 책은 당대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룩된 상태에서 언제나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한 미래에의 문을 열기 위해 이런 저런 정보들을 실어 날랐다. 물론, 이같은 지목은 읽고 임하기 위한 독서재로서의 문명적인 과업을 도맡다시피 한 책의 역할에 관한 현상적인 이해일 것이다.

문자와 책이 생겨나면서 ‘독서’란 말처럼 흔하게 사용되어 온 어휘도 드물 것이다. 참사람으로서의 수양을 인도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미 ‘독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수단인 책이야말로 또 다른 한편의 스승과 같은 존재라 일컫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한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동양과 서양이 두루 비슷한 데가 있었던 것 같다. 이를테면, 책을 기리는 생각이 아주 특별한 우리의 선인들은 여복해야 “책을 천하게 여기는 일은 부모를 천대하는 것과 같다”고 일러왔겠는가.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동일선상(군사부일체)에 놓고 섬김의 주체라 생각했던 동양적 정서는, 천륜을 말하는 준엄한 대명사로 빔대어 책의 위상을 떠받드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오래된 격언 중에도, 삶과 책의 누림을 말하여 “책이 없는 궁전에 사는 것보다 책이 있는 마구간에 사는 것이 낫다”고 했다. 사뭇 극단적인 비유로 갈라놓은 서술 차가운 경구이다. 또, 볼테르는 “오직 미개민족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몇 권의 책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했을 정도로 책이 발휘하는 힘을 자신의 《수상록》에 털어놓기도 했다. 참으로 단호한 정언명법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루신에 이르러서는, 읽는 이와 읽지 않는 자의 판가름이 왜 그다지도 다른 모습인가를 알게 해준다.

이렇듯, 읽기 수단으로서의 책은 독자를 개안케 하면서 사회를, 그 나라를, 그들의 세계를 보다 풍요한 삶의 터전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대표적인 물증이란 꼬리표도 동시에 매달고 있어 사뭇 역설적인 데가 있다. 예컨대, 디즈레일리의 지목이 그런 점을 짚어 낸다. 그가 쓴 《호세아》에 의하면, “책은 인간의 저주다”라고 노골적인 불평을 퍼부은 다음, “현존하는 책의 90 퍼센트는 시원찮은 것이며, 인간에게 내려진 최대의 불행은 인쇄술의 발명이다”고 혹평해 마지않았다. 말 그대로 ‘혹평’이라더니, 정말 거침없는 독설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평설들은 오늘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문제를 시사해 준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반의법적인 회두가 그런 견해를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책의 힘이, 책을 짚어 내는 인쇄술의 위력이 그만큼 가꿀할 만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변론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책도 종이책도 독서 로드맵》 민병덕 편역 | 문학산업연구소 | 394쪽 | 값 9,000원

이 시대에 있어 독서란 무엇인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언제나 구시월(9~10월), 그 가을이 찾아오면 이런저런 글편들에서 계절과 아우른 권독의 말들이 시선을 끌게 한다. 출판학자 민병덕 교수가 독서에 관한 주옥같은 서술들을 뽑아 번역해 낸 책, 《전자책도 종이책도 독서 로드맵》에 의하면 상식의 미옥함을 자극하는 게 적지 않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처럼 귀에 익숙한 말이 만해 한용운의 글 ‘독서삼매경’을 여는 첫 구절이라는 것이다. 하기가 가을에만 꼭 독서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면서도, 단지 열 글자뿐인 이 말은 수많은 뜻을 휘감은 채 이 계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을 넉넉하게 이끈다.

물론, ‘독서삼매경’이란 말도 만해에 의한 제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지적 노스탤지어는 어떤 고적한 산사의 범종 소리만큼이나 아늑한 사변에 젖게 한다. 이는 독서의 동양적 덕목인 인격배양과 자기 다지기(수양)에의 끼침을 만나게 하는 한 상황이기도 하다. 울곡이 일러 준 ‘독서모범’도 인격과 능력을 책임기르며 올곧게 키워 나가는 길을 가리켜 주고자 했다. 이쯤해서 독서에의 지향은 또 다른 이정표들과 만나게 된다. 요컨대, ‘저리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라’ 하는 길 안내(로드맵)를 말함이다.

남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논박하기 위하여 독서하지 말라. 내용을 믿어 통째로 삼키기 위하여도… 화제나 논제를 찾아내기 위하여도 독서하지 말라. 다만, 곰곰이 깊이 잘 생각하기 위하여 독서하는 것이 좋다.—본문 중 ‘독서의 이모저모’, 프란시스 베이컨

결국, 독서란 사치스러운 기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자양분을 흡인케 하는 공기임에야. 이 시대는 외양과 실속이 다른, 이른바 컬처럴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가 사회적 기류로 뒤덮여 있음을 본다.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책을 잘 읽지 못 하는 준문맹자뿐만 아니라 문화맹까지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 그런 것이다. 이 안에서의 준문맹자는 글자는 읽을 줄 알지만, 하나의 정연한 편차 시스템(editorial rule)으로 이어지는 텍스트 읽기가 도대체 어려운 기능적 문맹(functional illiteracy)을 가리킨다. 물론, 이들은 지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책은 있으되 책을 기피하려드는 세상. 사실이 그러하더라도 차마 긍정하기 곤란한 말이 ‘책을 기피하는 세상’인 것이다. 이 시대에 있어 독서의 의의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구렁텅이에의 추락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욱 무거운 과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선인들의 독서관은 언제나 새롭고도 크나큰 모범일 수밖에 없다.

왜 읽어야 하는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라는 시구가 있다. 그런데 왜 읽어야 하는가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말해야 하나? 이에 따른 답변은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단호한 데가 있다. 즉, 모든 독서재, 문자 등의 기호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텍스트들은 읽고 읽히기 위해 존재한다는 데서 원초적인 해명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책을 통해서 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낸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독서 로드맵은 치밀한 안내로 이것저것을 챙겨 옆길 트기를 어렵도 없게 만든다. 독서 예찬(김진섭)으로부터 시작하여 권독(이광수)과 방법(G. 브란테)을 고루 다룬 다음, 왜 독서를 하는가(A.C. 벤슨), 독서의 기술(에밀 파계), 독서의 길(칼 힐티) 등 전세계의 저명한 선학·선구자들이 고백한 독서담론과 편력들이 1백 편 넘게 듬뿍 채워 있다. 이 모두는 왜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해답을 선명한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

●

이 글을 쓴 이종국은

현재 해천대 교수(출판학)이며,

(사)한국출판학회 회장이다.

중국출판과학연구소의 해외특별연구원 및 중국 화중대학교 편집학연구소 고문(이상 현재)으로

피촉, 한·중 양국간의 출판학연구와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과 중앙대 및 중앙대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한양여대 강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독서와 출판문화론》(범우사, 공저, 1988), 《한국의 교과서》(대한교과서, 1991),

《한국출판역사연표 1, 2》(한국출판연구소, 1993), 《출판학원론》(범우사, 공저, 1995),

《현대출판론》(세계사, 공저, 1997), 《한국의 교과서 출판변천 연구》(일진사, 2001)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출판의 진화, 출판의 본질과

출판학연구, 교과서론 등이다.

